

시조 김옥중

자목련

발그레 피는 소리
보일 듯 흐드러져

신라의 가인인가
가야금을 들고나와

핑기는
소리소리에
원왕생가 떠온다.

약력

- ▲시조문학 전로,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자문위원
- ▲한국시조협회 부이사장 역임, 가람문학 회원
- ▲한국민족문학상, 운동주문학상, 한국시조협회문학상 대상
- ▲시조집: '매창 시비 앞에서', '들끓나무' 외

평설



김옥중님의 시조 '자목련'에서의 시적 화자는 자목련이 피어나는 모습을 섬세히 관찰하며 사색에 젖어 있다. 신라의 역사가 깃든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신라의 문화에 감탄한다. 그 신라의 문화를 꽃에 비유한다면 자목련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자목련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꽃빛에 취하게 된다. 시적 화자는 신라의 가인, 가야금, 원왕생가를 통해서 신라의 문화와 자목련을 오버랩시키고 있다. 이 시조를 음미하다 보면 저절로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듯하다. 1수에서 발그레 피는 소리가 보일 듯 흐드러져 있다며 시조의 문을 연다.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의 조화가 멋스럽다. 어쩌면 자목련은 신라의 가인인가 보다. 가야금을 들고나와 한 줄 한 줄 붉은 꽃빛의 소리를 뿜고 있으니까. 3수에서는 그 소리에 마치 원왕생가가 떠오른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왕생가는 신라 무왕 때 광덕이 지은 십구체의 향가로,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귀의하려는 불심을 담고 있다. 자목련은 겉은 붉은색 또는 자주색으로 피지만 안쪽은 흰색이다. 그 안쪽의 흰빛이 원왕생가로 표현되어 있어 깊이가 느껴진다. 단시조 속에 한 편의 역사 드라마가 담겨 있는 듯해 이색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이처럼, 시조 한 편으로도 얼마든지 독자들을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시 강금이

그리운 누이와 여름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던 해가
가출했다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짝 독이 올라 먹구름을 밀치고
열기를 뿜어내며 여름을 익히고 있다

꽃을 찾기 위해 주파수를 던지는 나비처럼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더위를 핏고 있는 여름
살살 달아내 텃밭에 내려놓으니
다소곳이 익어가는 소리가 달달하다

담장 위 바람은 잠자는 나뭇잎을 흔들며 놓더니
봉숭아꽃 붉은 입술모아 손톱에 물들이던 누이가
그리움이 수박씨만큼이나 폭폭 박혀온다

노을에 어둠이 그어지면 달맞이꽃 꺾어놓은 여름밤
누이 얼굴 닮은 별들로 돌아나
그리움이 수박씨만큼이나 폭폭 박혀온다

약력

- ▲'문학춘추' 시인단, 부풍오감차문화원 이사
- ▲광주문인협회, 문학춘추작가회 회원
- ▲아시아서적문학, 전남여류문학 회원
- ▲저서: '첫잔에 담긴 마음의 향기'

평설

강금이님의 시 '그리운 누이와 여름'에서의 시적 화자는 시집간 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시는 해를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대우하며 시의 문을 열고 있다. 가출했다 돌아온 해가 먹구름을 밀치고 여름을 익히고 있다. 더위를 핏고 있는 여름이 텃밭에서 익어 가는 소리로 달달하다. 바람은 잠자는 나뭇잎을 흔들며 놓고, 시집간 누이는 축축한 그리움만 남겼다. 누군가와 함께 어느 계절이든 보냈다면, 그 계절이 부르는 독특한 그리움이 있다. 그 계절이 되면 함께 보냈던 바닷가 냇새와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해 자꾸만 더 그리다. 시적 화자는 여름의 꽃대 아래서 봉숭아꽃 물들이던 누이를 그리워한다. 손톱에 물들인 봉숭아 꽃물이 아직 남아 있었던, 첫 오는 그날, 누이는 시집을 간다. 온통 여름밤은 누이 닮은 별들로 돌아오고, 누이에 대한 그리움은 수박씨처럼 박혀온다. 여름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그리움 여는 열실들로 반짝거리, 시집간 누이가 더 보고 싶다. 별 하나에 누이의 웃음이, 별 하나에 누이의 손짓이, 별 하나에 누이의 뒷모습이 생각난다. 시어 배치와 이미지 구현이 아주 섬세하고 세련되어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미묘한 감성의 어린 부분까지 읽어내고 그려내는 솜씨가 좋다. 시를 읽는 재미를 안겨 주고 있어, 행복하다.



시 양동률

발끝에 뜬 나비의 꿈

옥필통에 바람 한 줄기

허공의 손가락에 음표 달아
겨드랑 사이로 일렁이던 바람결
그림자만 바스락거린다

온몸 겹겹이 접어놓은 숲의 문양으로
속눈썹 같은 별자리 뿌려 놓은 바람의 무늬들
문득, 유목의 긴 행로를 찾아
가는 길 묻고 싶다

나비처럼 등글게 몸 마는가 싶더니
뜨거운 호흡 내뿜으며
살갗 환하게 풀어헤치는 점점선점觸貼扇*
느슨해져 가는 한때의 푸른빛을
잇몸으로 켜켜이 물고 있다

깊은 눈으로 기억을 더듬어
계절의 등선에 문양을 저 청춘의 꽃자리에
우화의 분향을 찾아
발끝에 뜬 나비의 꿈

옥필통에 이는 한 줄기 서체로 핀다

*점은부채 혹은 점부채라고도 함

약력

- ▲열린시학 등단,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공모전 수상
- ▲윤중주 탄생백주년 기념 문학상 수상(문학대상)
- ▲한국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 회원
- ▲현광주재능시낭송협회 부회장
- ▲저서: '발끝에 뜬 나비의 꿈'

평설

양동률님의 시 '발끝에 뜬 나비의 꿈'에서의 시적 화자는 옥필통에 이는 바람 한 줄기를 관찰하고 있다. 그 바람은 허공의 손가락에 음표를 달고 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바람의 노랫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그 바람은 온몸 겹겹이 접어놓은 숲의 문양을 하고 있어 속눈썹 같은 별자리를 뿌려 놓기도 한다. 여기서 문득 시적 화자는 바람에게 유목의 긴 행로를 찾아가는 길을 묻고 싶어 한다. 유목민처럼 수천 년을 떠도는 바람은 그 길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답답한 인생 행로도 바람은 알고 있을 것 같다. 종종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바람을 쐬려 밖으로 나간다. 은연중에 우리는 바람을 동경하고 바람을 열망하며 바람처럼 살고 싶은 것이다. 맨발로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듯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다. 또 바람은 느슨해져 가는 한때의 푸른빛을 잇몸으로 켜켜이 물고 있다. 참 멋진 표현이다. 푸른빛의 가을 하늘을 바람이 물고 있는 건지,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호수를 바람이 물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잘 표현했다. 바람은 다시 어느 한때 청춘의 꽃자리에 나비의 꿈이 되었다가 옥필통에 이는 한 줄기 서체로 피어난다. 바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낯설게 하기가 멋스럽다.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세시의 특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게 바로 시의 맛이지요. 맛이 아닐까.



수필 김정화

무등산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마중 나와 있었다. 어떤 날은 회색빛 구름에 싸여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또 어떤 날은 저녁노을에 취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서 있었다.

갈매빛 등성이에 흰 눈을 엮고 철인처럼 의연히 시가(市街)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그를 만나는 날은 나도 무언지 깊은 상념 속으로 빠져들었고, 은빛 햇살을 지느러미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젖어있는 날엔 나도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회색빛 짙은 하늘 아래 그는 돌아앉아 있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

이곳저곳에서 종일 평평 터지는 최루탄 가스에 속이 상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사 배를 곯든 말든, 외제 차에 외제 가구, 외제 음식물까지 온통 외제 일색으로 돈을 몰 쓰듯 하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작태에 그만 눈을 감고 싶었을까? 물질에 홀려, 이기심에 젖어 본성을 잃고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를 돌아앉게 했는지 모르겠다.

버스를 타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그를 찾아 나서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늘 먼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리워한다. 일상에 지쳐 숨이 막히는 날 그를 바라보면 그는 종마(種馬)의 등 같은 널찍한 등을 내어준다. 그리고 투정 부리는 아이를 다독이는 엄마처럼 가만가만 내 울화를 잠재운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답답함을, 울혈을 다 풀어낼 수 없는 날, 그를 찾아 나선다. 아무리 오랜만이어도 그는 투정이 없다. 수다스러운 인사말도, 나무람의 말도 없이 묵묵히 나를 반겨준다. 만산홍엽 진달래로, 용추계곡 물소리로, 새인봉 메아리로, 그는 철 따라 날아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말하고 위로한다. 어떤 날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갈대밭의 물살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백설 분 날리는 설국의 여왕이 되어 그 품속에 놀다가 돌아온다. 그렇게 그의 가슴팍을 헤집다 돌아온 날은 나를 무던히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고질병인 불면증에서도 외로움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다.

서석대 절벽 아래 고고하게 피어난 들국화의 의지를 가슴에 묻혀오던 날, 내

연약함이 부끄러워 웅덩이처럼 깔린 솔잎 위에 묻힌 듯 드러누웠다. 갈바람이 실어준 그윽한 솔향에 취해 하산하는 길에 자꾸만 콧노래가 나왔다. 용추계곡 폭포수 아래 서면 오욕질정도로 얼룩진 내 뒤통린 심사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진다. 선녀라도 내려와 듯하여 울려다본 하늘엔 동아줄은 안 보이고 무심한 구름만이 한가롭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곳에 전설처럼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나의 말벗이 되고 내 마음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었다. 어떤 때는 가슴이 파듯하여 아무 말이나 다 쏟고 싶은 소탈한 친구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리운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들 녀석을 때려놓고 먹먹한 심사로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변함없이 마중 나와 있는 그를 보았다.

2월 보름께 달빛에 쪽빛 무명베 치마의 어머니로 서서 그는 "내 새끼!" 하며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았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거북살스럽게 틀어 올랐던 울먹임이 '흠'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낼을 기뻐해야지." 그는 나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온통 길바다는 선전용 팜플렛으로 가득하고, 평구는 종이쪽보다 더 많은 날조된 공약들이 독가스보다 더 지독한 공해로 떠도는 요즘을, 세상은 자욱한 안개로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무심히 그곳을 향한 내 시야에 그가 없었다. 내 눈 탓이려니,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는 거기 없었다. 자욱한 안개인가 매연인가 그것만이 그가 있던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덜경한 심사.

그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떠나게 했을까? 인간들의 하는 짓들이 너무 답답하여 하루쯤 훌쩍 여행을 떠난 것일까?

자고 나면 그는 돌아와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인 듯 무거웠다.

그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 것인가?
그가 있기에 내가 여기 머물고, 그가 있기에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다.
무등산!
정말 그대를 사랑한다.

약력

- ▲광주문인협회 회원
- ▲월간문학 회원
- ▲수상: 광주문학상, 신곡문학상 수상
- ▲작품집: '왜 우리에게 도움이되는 없는가', '우리는 무엇에길들여사는가'

평설

김정화님의 수필 '무등산'에서의 서술자는 무등산을 마치 어머니처럼 바라보고 대화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무등산에 가면 후련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처럼 산이 품어 줘서일 것이다. 무등산은 봄에는 꿈을 향해 다시 열정의 꽃을 피우 보라며 응원해 주고, 여름에는 잠시 그늘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라며 걸을 내주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자신의 색깔대로 살아가라며 격려해 주고, 겨울에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 내 자신과 대화해 보라며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어머니처럼 넉넉히 품어 주고 다독여 주는 그 무등산이 있기에 광주의 시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 수필은 그런 무등산의 넉넉한 품성을 어머니와 동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잘 풀어내 주고 있다. 일과 후 언제나 변함없이 마중 나와 있는 산, 늘 설렘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는 산, 때론 최루탄 가스에 속이 상해 돌아앉은 산, 일상에 지쳐 숨막히는 날엔 엄마처럼 울화를 잠재워 주는 산, 간혹 산행할 땀 목욕터 반겨 주는 산, 고질병인 불면증과 외로움에서 헤어나게 해주는 산, 언제나 한곳에 전설처럼 서 있는 산, 때론 말벗이나 의지처나 소탈한 친구나 그리운 연인으로 다가오는 산, 아들과 헤어져 귀가할 땀 무명베 치마 입을 어머니로 서서 위로해 주는 산, 매연이 심할 땀 짐작을 감했다가 돌아오는 산, 이런 무등산을 서술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고백이 진솔하여, 잔잔한 감동을 준다. 수필의 특징을 두루 갖추면서, 시대를 진단하고 내려다보며, 위로하여, 나아가 방향까지 은은히 제시해 주는 수필, 이런 수필이 우리 곁에 있어 참 행복하다.

평설=박덕은 문학평론가

약력

- ▲문학박사, 전남대학교수역임
-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동양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6889
- 동북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6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9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8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6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655-9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